

강진군 ‘한우 스마트팜 관리시스템’ 보급 성과

국비 투입 10곳 보급 AI 등 활용 분만 등 행동 변화 감지
번식 효율 높이고 질병 예방...노동력 절감·생산성 강화

강진군이 추진하는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 축산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비를 확보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2억원을 투입, 영상정보 기반의 승가행위 판독시스템과 분만 알람 시스템을 지역 한우 농가 10곳에 보급했다.

승가행위 판독시스템은 축사 내 카메라가 암소의 움직임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발정 시 보이는 특유의 승가행위를 자동 인식하는 방식이며, 분만알람 시스템은 분만 전후에 나타나는 체형·행동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농가에 알람을 전달한다.

두 시스템 모두 영상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의 관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번식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승가 검출률이 95%로 이 덕분에 발정·분만 관리의 정확도 향상으로 번식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사환경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적용돼 축사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가축 질병·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더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정확한 발정 발견과 분만 관리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번식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 또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작년엔 중당마을 청년농업인 전상민씨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축사에 들어가 소들을 살펴야 했지만 시범사업 수행 후 승가행위가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관련 징후가 나타나는 순간에도 알람이 와 훨씬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며 “특히 발

정을 놓치지 않아서 번식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다”라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시범사업 평가회를 열어 성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평가회에서는 참여 농가의 90% 이상이 “노동력이 줄고 경영 효율이 개선됐다”라고 답했다.

평가회에서는 실제 활용 경험과 개선 의견이 공유됐고, 농가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 보완에 반영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현장 적합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야간이나 농작업으로 바쁠 때도 긴급 대응이 가능해 분만 사고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현장에서 농가들이 효과를 체감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사업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축산업 전반에 안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



강진군이 한우 번식관리시스템을 보급해 시범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세계 최장 운영’ 장성아카데미 30주년 기념 포럼

‘함께한 30년, 함께할 미래’ 주제
강대중 서울대 교수·가수 선 특강

장성군이 ‘함께한 30년,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장성아카데미 30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다.

장성아카데미는 1995년 9월15일을 첫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1200회가 넘는 강연을 개최, 세계 최장 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포럼에서는 개최 선언과 기념 영상 시청, 기념사, 축하 공연, 비전 선포, 특별 강연 등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제5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움,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모습에 대해 강연했다.

2부에는 누적 기부액 5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수 선이 강단에 올랐다. 선은 ‘나눔, 사랑을 잇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나눔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장성아카데미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가수 선이 강단에 올라 강연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아카데미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대표 모델로 발전했다”라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

이라는 모토를 이어받아 삶 속에 배움을 전하는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중소기업 대출 보증료·이자 지원

IBK기업은행과 금융지원 협약

나주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최근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대출 시 최대 1.2%의 보증료 지원과 2.5%의 이자 보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대출은 시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보전 제도를 기반으로 시행한다.

대출을 신청한 기업은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받고, 나주시로

부터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원이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시작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전국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나주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체를 가동하는 중소기업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 대출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생수 나눔 냉장고’ 두 달간 12만병 제공

시민들 온열질환 예방 기여

나주시가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7곳에 설치한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총 12만 병 이상의 생수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나주시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을 지난 14일 종료했다.

시는 7월 10일부터 64일간 금성산 둘레길, 빛가람 호수공원,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남평구교, 대호수변공원 등 5곳에 냉장고를 설치·운영했다. 지난해보다 2곳을 늘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기간 하루 평균 1900병, 총 12만 병 이상의 생수를 제공했다. 시민들은 “도심 속 오아시스 같다”, “운동 중 큰 도움이 됐다” 등의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무라벨 생수 공급과 현장 재활용 분리수거대 운영으로 환경보호 효과까지 더해져 단순 복지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행정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 속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은 배려가 실질적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결국 전철 아닌 디젤열차...목포임성~신보성 27일 개통

주민들 “깡통 철도노선” 반발

목포임성~신보성간 전철화 철도노선이 결국 디젤 열차로 오는 27일 정식 개통한다.

앞서 이 구간은 전철이 아닌 디젤기관차 노선으로 밝혀지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민들은 “실속 없는 깡통 철도노선”이라며 실망감을 키웠다. <광주일보 8월25일자 14면 보도>

전남도는 남해안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관련 지자체인 영암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 보성군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구간을 전철인 준고속열차로 운행 함께 모든 역에 근무자가 배치되는 유인역으로 운영해줄 것을 코레일 측에 요구

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이 구간이 전철노선이지만 보성~순천역 구간이 비전철로 두 차레나 환전해야 하는 어려움과 적자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디젤 무궁화호(편도 3회)와 새마을호(편도2회) 열차로 1일 5회 왕복 운행하겠다는 방침 밝히고 지난 16일 전남도와 관련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성역~신보성역 구간을 전철노선으로 운행할 경우 연간 44억원에 달하는 적자손실금을 관련 지자체가 부담해주면 준고속 열차로 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남도와 관련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디젤열차로 운행하기로 했

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애초 강진역을 제외한 6개역을 무인역으로 운영할 방침에서 장동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 안전유지 차원에서 근무자 1명을 고장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한 주민은 “이대로라면 21년 만에 개통해도 유명무실한 전철노선으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완전한 전철화가 언제나 이뤄질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목포 임성역~부산(부전역)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철도운행은 오는 26일 개통식을 갖고 27일부터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황룡강변 일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활주로형 야간 조명.

장성군, 황룡강 자전거 도로에 야간 조명 설치

장성군이 황룡강변 자전거 도로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활주로형 야간 조명을 설치했다.

조명은 제1황룡교·황룡파크골프장, 황룡파크골프장 연승장·황룡대교 등 2개 구간에 설치됐다. 해당 도로 총 길이는 2.4km다.

자전거 도로에 설치한 야간 조명은 공황 활주로에 설치한 유도등에서 착안한 바닥 조명이다. 일정 간격을 두고 바닥에 부착, 어두운 시간 자전거

를 운행할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

국선 구간과 교차로, 보행자 점점 구간 등 위험 구간에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충전식으로 작동돼 유지·관리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장성군은 활주로형 야간 조명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고인돌 가을꽃 축제 음식부스 19개소 운영자 모집 19일까지...온라인 접수 가능

화순군이 고인돌 가을꽃 축제 음식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지역 풍미와 간편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토 음식 6개소, 단품 음식 13개소 등 총 19개소 규모로 진행된다.

음식 부스는 축제 기간인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개인 및 단체로 제한된다.

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입점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향토 음식은 25만원, 단품 음식은 가스 설치 여부에 따라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19일까지이며,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축제기획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안내 및 신청 서류는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전남음악창작소에서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와 공동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국내 베트남인 새 관광수요 창출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와 협약

갈대축제서 ‘베트남의 날’ 개최

강진군이 국내 베트남인과 협력해 새 관광수요 창출에 나섰다.

강진군은 군 문화관광재단이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와 공동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과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 응오티함(한국명 박진주) 상임부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38만

여명의 베트남 교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강진을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 ‘베트남의 날 in 강진’ 행사 개최를 비롯해 베트남 교민 관광 홍보·유치와 문화행사 및 축제 상호 홍보·참여 지원, 강진-베트남 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강진원 군수는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 임원들을 맞이해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의 강진 관광 등 교류 확대를 요청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